

‘부당한 연역 논증’은 형용모순이다!*

최 훈

【국문요약】 홍지호·여영서는 “‘부당한 연역 논증’은 형용모순인가?”라는 논문에서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실현 기준이 아닌 의도 기준을 지지한다. 이 논문은 그들의 주장을 비판하는 것이 목표이다. 나는 그들의 주장이 논증 재구성과 논증 분류[평가]를 헷갈리고 있으며, 의도 기준의 난점을 해명하면서 실현 기준을 들여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논리학자들은 논증을 연역, 귀납, 그리고 나쁜 논증으로 나눈다. 나는 연역과 귀납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논리 교육에서는 연역과 귀납의 구분을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어】 연역, 귀납, 실현 기준, 의도 기준, 홍지호, 여영서

투고일: 2020. 02. 02 심사 및 수정 완료일: 2020. 02. 20 게재확정일: 2020. 02. 20

* 2018년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관리번호 -620180010). 심사위원들의 날카롭고 유익한 심사 의견에 감사드린다.

1. 머리말

학문으로서의 논리학이든 교양 교육으로서의 논리학이든 가장 기본적으로 접하고 가르쳐지는 개념은 ‘논증’이다. 그리고 ‘논증’을 이해시키기 위해 일단 ‘전제’와 ‘결론’을 설명하는데, 그리고 나서 대체로 ‘연역’과 ‘귀납’을 소개한다. 연역과 귀납은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뜻과 철학자들이 이해하는 뜻이 완전히 다른 특이한 개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연역과 귀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연역: 어떤 명제로부터 추론 규칙에 따라 결론을 이끌어 냄. 또는 그런 과정.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하여 개별적인 사실이나 보다 특수한 다른 원리를 이끌어 내는 추리를 이른다.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수한 사유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전형은 삼단 논법이다.

귀납: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 및 법칙을 유도해 내는 일. 추리 및 사고방식의 하나로, 개연적인 확실성만을 가진다.

특이한 것은 표준국어대사전은 위 두 개념을 철학의 전문용어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역과 귀납을 일반적인 사실과 개별적인 사실의 관계를 통해 정의하려는 시도는 철학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영철 교수(이하 존칭 생략)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그 기원이 있다는 주장¹⁾을 소개한 후 그것은 표면적으로만 맞는 말인 것 같다고 주장 한다²⁾. 이영철이 인용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과 귀납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박종홍(1985)이나 김준섭(1976) 등 우리나라 초창기의 논리학 교과서가 그것이다. 아마 일반인들에게 연역과 귀납을 일반적인 사실과 개별적인 사실의 관계를 통해 정의하는 것이 퍼진 이유는 이 초창기 교과서들 때문인 것 같다.

2) 이영철(2016), p. 58.

연역은 어떤 것들이 진술되면, 그것들이 그러하다는 것으로부터, 그 진술된 것과는 다른 어떤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논 의이다.

귀납은 보편적인 것의 원리이기도 한 반면, 연역적 추론은 보편적 인 것들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연역적 추론은 원리들로부터 출발하지만, 이 원리들에 대한 연역적 추론은 없다. 따라서 그 것들은 귀납에 의한 것이다.

귀납은 개별자들로부터 보편자어로 이르게 하는 통로이다.

위 첫 번째 정의에서 보듯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 정의는 우 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철학자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바로 그 정의이다. 아마도 두 번째 정의를 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일반적인 사실과 개별적인 사실의 관계를 통해 연역과 귀납을 정의했다고 말 하는 것 같은데, 이영철이 지적하듯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연 역은 타당성을 지닌 삼단 논법이고, 삼단 논법에는 전제에 반드시 보편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³⁾. 이영철은 귀 납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위와 같이 발언했는지 특별히 추측을 하지 않는다. 내가 추측하기에는 그런 보편적인 전제에 다 른 타당한 삼단 논법을 쓰지 않고 이르는 가장 흔한 방법은 열거 에 의한 귀납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마도 귀납을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 그렇다면 위 세 번째 정의는 귀납의 정의라기보다 는 귀납으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역할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이 있기에 연역과 귀납을 일반적인 사실과 개별적인 사실의 관계를 통해 정의하는 것은 철학에서도 그 기원을 찾기 어 렵다.⁴⁾ 일반인들이 철학과 상관없는 별개의 개념으로 연역과 귀납

3) 이영철(2016), p. 59. 사실 이영철의 이런 분석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나 이 논문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므로 이영철의 주장을 인용하는 데서 그 치겠다.

4) 일반적인 사실(보편성)과 개별적인 사실(특수성)의 관계를 통한 연역과 귀납 의 정의가 갖는 문제점은 코피·코헨(2000, p. 27 이하)에서 지적되었다.

을 위와 같이 이해한다면 전문 용어와 일상 용어가 다른 뜻으로 쓰이는 일이 흔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역과 귀납을 철학 용어로서 위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⁵⁾

연역과 귀납의 정의를 둘러싼 이상의 논란은 일반인에서 생기는 것이지만 철학자들 내에서는 또 다른 논란이 있다. 연역과 귀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연역: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거짓일 논리적인 가능성이 없는 논증.
 귀납: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거짓일 논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논증.

나는 방금 이러한 연역과 귀납의 정의가 ‘일반적’인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나의 특정 견해가 들어가 있는 정의이다. 왜 이렇게 정의하는지는 2절에서 말하겠는데, 현재로는 연역과 귀납을 의도를 개입하여 정의한 것과 구분된다는 점만 드러나면 된다. 방금 제시한 연역과 귀납의 정의는 논증이 갖는 실제 모습, 다시 말해서 전제와 결론 사이에 실현된 관계를 통해 이루어져 있다. 이에 견주어 연역과 귀납을 논증 제시자의 의도나 믿음을 통해, 다시 말해서 전제와 결론 사이에 의도된 관계에 의해 정의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제시된 연역과 귀납 정의를 통해 말해 보면, 연역은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거짓일 논리적인 가능성이 없다고 의도하는[믿어지는] 논증이고, 반면에 귀납은 그럴

5) 내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 4종 중 3종에서는 논증을 다루는 장에서 연역과 귀납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는 철학적으로 부정확하다는 문제가 있는 동시에, 이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중요한 입론인 논리 교육에서 연역/귀납의 구분의 쓸모와 관련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점은 5절에서 다루겠다.

논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의도하는[믿어지는] 논증이다. 홍경남은 논증에서 구현된 실제적 모습을 가지고 정의하는 접근법을 **수행적 접근법**으로,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가지고 정의하는 접근법을 **심리적 접근법**이라고 부른다.⁶⁾ 연역과 귀납의 정의를 둘러싼 수행적 접근법과 심리적 접근법 사이의 논쟁은 비형식 논리학 분야의 학술지인 『비형식 논리학』 (*Informal Logic*)이 창간된 초기 무렵에 한 번, 그리고 2000년대에 또 한 번 비형식 논리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졌다.⁷⁾ 최근 국내 학자들이 이 논쟁에 참여하였다. 이영철은 심리적 접근을 비판하고 수행적 접근법을 지지한다.⁸⁾ 홍지호·여영서는 수행적 접근법과 심리적 접근법을 각각 **실현 기준**과 **의도 기준**이라고 부르고, 이영철 교수와 실현 기준을 비판하며 의도 기준을 지지한다.⁹⁾ 김진형은 다시 홍지호·여영서를 비판하며 실현 기준을 지지하는 논문을 발표한다.

이 논문은 의도 기준을 지지하는 홍지호·여영서의 논문을 주된 비판 대상으로 하여, 실현 기준을 지지하려고 한다. 그러기에 연역과 귀납의 정의를 둘러싼 견해들을 가리키는 여러 용어들 중 홍지호·여영서가 쓰는 ‘실현 기준’과 ‘의도 기준’을 쓰도록 하겠다.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이기도 하다.) 홍지호·여영서의 논문에 대한 김진형의 비판이 이미 있는데도 홍지호·여영서의 논문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김진형의 비판이 홍지호·여영서의 논문에 집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충분하지 않다고 여긴 측면도 있지만, 무엇

6) 홍경남(2012), p. 186.

7) 홍경남(2012)에는 이 논쟁이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논쟁에 참여하는 학자들이 누군지는 여기서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8) 이영철(2016, p. 57)은 심리적 접근법은 ‘전제와 결론의 도출 관계에 대한 논증자의 주장 유형에 따른 구분’, 수행적 접근법은 ‘전제와 결론의 실제 도출 관계 유형에 따른 구분’이라고 부른다.

9) 홍지호·여영서(2019). 앞으로 이 논문의 인용할 때 페이지 표시는 본문에서 할 것이다.

보다 그들의 논문 제목인 “‘부당한 연역 논증’은 형용모순인가?”는 이 논쟁의 내용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타당성이 성립하는 논증만이 연역이라는 입장, 곧 실현 기준에서는 ‘부당한 연역 논증’은 마치 ‘둥근 사각형’처럼 형용모순이다. 나는 그들의 주장을 비판하며 ‘부당한 연역 논증’은 형용모순이 맞다고 주장하겠다. 먼저 2절에서는 홍지호·여영서가 중요하게 구분하는 논증 분류 기준과 논증 평가 기준을 검토한다. 이 구분이 현재의 논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을 인정하면서도, 논증 평가는 논증을 분류하면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겠다. 그리고 논증을 연역과 귀납과 나쁜 논증으로 구분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연역과 귀납으로만 구분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겠다. 3절에서는 적어도 논증과 논증 아닌 것을 식별할 때는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하겠다. 그러나 4절에서는 홍지호·여영서가 제시한 주장을 비판하면서 연역과 귀납을 구분할 때는 의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겠다. 이때 그들이 논증의 재구성과 논증 분류[평가]를 헛갈리고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지적하겠다. 맺음말에서는 좀더 근본적으로 논리 교육에서 연역과 귀납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겠다.

2. 논증 분류 기준과 논증 평가 기준

홍지호·여영서는 실현 기준과 의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실현 기준: 전제와 결론 사이에 실현된 뒷받침 관계

의도 기준: 전제와 결론 사이에 의도된 뒷받침 관계

그리고 나서 실현 기준에 따라 논증의 종류를 구분한다. 곧 실현

기준에서 전제와 결론 사이에 실현된 뒷받침 관계가 연역적이면 연역 논증, 귀납적이면 귀납 논증, 어느 것도 아니면 나쁜 논증이라고 말한다(p. 160). 이 기준에 따르면 타당한 논증만이 연역 논증이고, 타당하지 않은 논증은 귀납 논증이거나 그릇된 논증이 된다. 그러니 ‘부당한 연역 논증’은 형용모순이 되고, ‘타당한 연역 논증’은 ‘역전앞’처럼 같은 뜻의 말이 겹쳐서 된 겹말이 된다. 홍지호·여영서는 실현 기준에서 이렇게 형용모순이나 겹말이 생기는 까닭은 연역과 귀납을 논증 분류어이면서 동시에 논증 평가어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한다(p. 161). 어떤 논증을 연역으로 분류하면서 동시에 타당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연역 논증은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처럼 ‘연역’과 ‘귀납’을 논증 분류어와 논증 평가어로 구분하여 사용한다면 사정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논증 중에는 연역 논증으로 분류되는 것이 있고 귀납 논증으로 분류되는 것이 있는데, 연역 논증으로 분류되는 것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귀납 논증으로 분류되는 것 중에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는 입장에 선다면, ‘부당한 연역 논증’이라는 표현은 형용모순이 아니다. 의도 기준이 바로 이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p. 161)

홍지호·여영서가 논증 분류어와 논증 평가어를 구분하는 방법은 실현 기준과 의도 기준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교통정리해 주는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해서 실현 기준과 의도 기준에서 각각 말하는 ‘연역’과 ‘귀납’이 서로 다른 외연을 가리키는 애매어이기 때문에 각 기준은 ‘연역’과 ‘귀납’으로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현 기준에서 말하는 연역과 귀납은 논증 분류어로서의 연역과 귀납이고, 의도 기준에서 말하는 연역과 귀납은 논증 평가어로서의 연역과 귀납이다. 연역만 놓고 말해 보면 논증 분류어로서

의 연역은 오로지 타당한 연역 논증만을 가리키지만, 논증 평가어로서의 연역은 타당한 연역과 부당한 연역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연역으로 의도했지만 연역은 되지 못했으나, 여전히 연역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이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은 아니게 된다. “(논증 분류어로서의) 연역으로 의도했지만 (논증 분류어로서의) 연역은 되지 못했으나, 여전히 (논증 평가어로서의) 연역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기 때문이다.

김진형은 애매어인 연역을 구분하기 위해 논증 분류어일 때는 ‘연역’을 그대로 쓰고 논증 평가어일 때는 ‘연역적’이라는 용어를 쓰자고 제안하는데 나름 편리한 면이 있다.¹⁰⁾ ‘-적’이라는 접사는 ‘그 성격을 띠는’이나 ‘그에 관계된’이라는 뜻을 띠는데, ‘부당한 연역 논증’은 ‘연역’ 논증은 아니지만 ‘연역’과 관련된, 곧 ‘연역적’인 논증이라고 말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방금 말한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문장은 “연역으로 의도했지만 연역은 되지 못했으나, 여전히 연역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깔끔하다. 그리고 홍지호·여영서의 주장처럼 ‘부당한 연역 논증’은 형용모순이 아닐 수 있다. 실현 기준에서 그것이 형용모순이라고 문제 삼으면, 홍지호·여영서 입장에서는 이때 ‘연역’은 논증 분류어가 아니라 논증 평가어라고 말하면 되기 때문이다. 김진형이 제안한 신조어로 말해 보면, ‘부당한 연역적 논증’이기에 어떤 이상한 점이 없게 되는 것이다. 마치 ‘성공한 실패’라고 말하면 모순이지만 ‘성공적 실패’라고 말하면 모순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실패했지만 성공적일 수 있고, 연역이 못 됐지만 연역적일 수 있다! (나는 논문의 마지막에서 ‘연역적’을 대체할 다른 용어를 제안하겠다.)

실현 기준과 의도 기준이 쓰는 연역과 귀납이 애매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두 기준 사이의 논쟁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이

10) 김진형(2019), pp. 103-04.

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둘 사이의 논쟁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당장 서로 자신이 쓰고 있는 연역과 귀납이 진짜 연역 또는 귀납이라고 다룰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이 다툼은 다음 절 이후로 미루고, 여기서는 논증 분류어와 논증 평가어를 따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지 검토하려고 한다. 홍지호·여영서는 실현 기준에서 연역과 귀납을 구분하는 것은, 그 기준의 의도와 달리, 단지 논증을 분류하는 것뿐이고 논증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위에서 인용한 것처럼 그 이유로 연역 논증으로 분류되는 것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귀납 논증으로 분류되는 것 중에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을 든다. 그러나 실현 기준이라고 해서 논증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연역만을 놓고 말해 보면, 실현 기준 입장에서는 어떤 논증이 연역이라고 분류하는 것 자체가 그 논증이 타당하다고 말하는 것인데, 타당하다는 것 자체가 평가어이다.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거짓일 논리적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다른 논증이 갖지 못한 가치, 그것도 꽤 강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참·거짓값을 평가할 때 ‘거짓일 논리적 가능성이 없다’는 것만큼이나 강력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는가? 이러니 실현 기준은 논증을 분류하면서 동시에 평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홍지호·여영서는 연역 논증으로 분류되는 것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분류와 평가는 별개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때 연역 논증으로 분류되는 것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주장은 자신만의 평가 기준이다. 다시 말해서 연역 논증 중에서도 타당한 연역과 부당한 연역이 따로 있다는 자신만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는 분류와 별개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실현 기준 역시 연역 논증이 곧 타당한 논증이라는 자신만의

평가 기준으로 분류 및 평가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그와 다른 자신만의 평가 기준으로 평가와 분류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평가 기준이 별개로 있다는 선결문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홍지호·여영서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만 주장했지 실현 기준이 연역과 귀납의 더 올바른 정의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 주장은 다음 절 이후로 미루고, 여기서는 나 역시 연역 논증으로 분류되는 것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홍지호·여영서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점을 말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물론 그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연역 논증은 타당하다는 평가 기준으로만 보면 연역 논증이 곧 좋은 논증이다. 여기까지는 분류와 평가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논증을 평가할 때 타당하다는 기준만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타당한 연역 논증이라고 하더라도 논증으로서 **적합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대표적인 논증으로 방금 홍지호·여영서를 비판하는 데 쓰인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가 있다.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는 타당한 논증이다. “A이므로 A이다.”가 가장 전형적으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저지르는 논증인데, 이 논증은 완벽하게 타당한 논증임을 생각해 보면 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논증을 오류로 취급하며 적합한 논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미 타당하다고 평가가 이루어진 논증에 대해 다시 한 번 평가를 하는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첫 번째 평가는 타당성의 정의에 관심을 갖는 논리학자의 평가이고, 두 번째 평가는 그 논증을 일상생활에서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냐는 (논리학자를 포함한) 일반인의 평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맺음말에서 다시 말하겠는데, 현재로는 논증 평가는 다양한 관점에서 또 다양한 맥락에서 할 수 있다는 점만 언급하겠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홍지호·여영서가 주장한 것처럼 연역 논증으로 분류되는

것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다만 그들과 다른 이유에서이다.

귀납 논증의 경우에도 연역 논증과 마찬가지로 두 번의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귀납 논증의 정의에 맞는 경우에 최초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때의 평가는 평가라고 하기에는 약간 민망하다. 내가 제시한 귀납의 정의에 따르면 귀납은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거짓일 논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논증인데, 이런 논증은 결론이 거짓일 논리적 가능성이 거의 0%인 논증부터 완전히 100%인 논증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귀납의 정의는 방금 내가 제시한 형태보다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흔하게 제시된다.

만일 전제가 모두 옳을지라도 결론은 옳음 직할 뿐이지 반드시 옳지는 않다.¹¹⁾

여기서 ‘옳음 직함’은 ‘개연성’을 말한다. 홍지호·여영서도 귀납을 개연적 뒷받침이 성립하는 (또는 그것을 의도하는) 논증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 정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정의에 맞는 귀납 논증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개연적이어야 하는가? 전제가 참이라고 할 때 결론을 90%만큼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80%? 아니면 50% 이상? 정의는 모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정의의 기본적 특성 중 하나인데¹²⁾, 이와 같은 귀납의 정의는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중요한 이유는 홍지호·여영서가 보기에 실현 기준에서는 논증을 타당성이 성립하면 연역 논증, 개연적 뒷받침이

11) 새먼(2004), p. 30. 대부분의 논리학 교과서의 정의는 새먼의 정의와 대동소이하다.

12) 코피·코헨(2000), p. 128.

성립하면 귀납 논증, 그리고 타당성도 개연적 뒷받침도 성립하지 않으면 나쁜 논증으로 규정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먼처럼 실현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학자도 논증의 종류를 그렇게 구분한다.¹³⁾ 그러나 개연적 뒷받침이 어느 정도 성립하지 않아야 나쁜 논증인가? 10% 미만? 아니면 20% 미만? 그도 아니면 50% 미만. 개연성 있는 귀납 논증이 모호한 만큼 나쁜 논증도 모호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제시한 것처럼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거짓일 논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논증은 모두 몽똥거리 귀납 논증이라고, 다시 말해서 연역 논증이 아니면 모두 귀납 논증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다.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거짓일 논리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연역 논증이고, 조금이라고 있으면 귀납 논증이라고 말이다.

물론 귀납을 내가 제시한 것처럼 정의하면 귀납으로 분류하면서 동시에 평가한다는 말이 무색하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연역 논증과 관련해서 말한 것처럼 평가는 다양한 관점에서 또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홍지호·여영서는 유비 논증을 예로 들면서 먼저 귀납 논증으로 간주한 다음에 유비 논증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충족하는 평가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이러한 절차는 실현 기준과 일관적이지 않다.”라고 말한다(p. 169). 그러나 연역 논증에서도 말했지만 실현 기준도 연역과 귀납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이때 일차적인 평가를 하고) 또 다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누군가에게는 귀납 논증이라는 것은 연역 논증이 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두말할 것 없이 더 실질적인 평가는 귀납 논증으로 분류한 다음에 이루어질

13) 그는 이른바 ‘의도 기준’을 비판하기 위해서 “올바르지 못한 연역 논증이나 올바르게 못한 귀납 논증은 있을 수 없”고, “타당한 연역, 올바른 귀납, 그리고 여러 종류의 그릇된 논증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한다. 새먼(2004), p. 35.

것이다. 귀납 논증 중에서도 개연성이 강하면 좋은 논증이 되고, 개연성이 약하면 나쁜 논증이라고 말이다. 실현 기준이 왜 이것을 부정하겠는가? 물론 어느 정도가 되어야 개연적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고, 똑같은 논증이라도 맥락에 따라 개연성이 다를 수 있다.

홍지호·여영서에 따르면 실현 기준에서 논증은 타당성이 성립하면 연역 논증, 개연적 뒷받침이 성립하면 귀납 논증, 그리고 타당성도 개연적 뒷받침도 성립하지 않으면 나쁜 논증으로 분류된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의도 기준에서 논증을 어떻게 분류할까? 그들의 논문에서 이런 분류는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추측하자면 연역으로 의도된 논증, 귀납으로 의도된 논증, 그리고 나쁜 논증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은 의도 기준에서 도대체 ‘나쁜 논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논증 제시자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제시하는 논증이 타당하거나 개연적임을 의도할 텐데, 도대체 나쁜 논증을 의도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나쁜 논증으로 기껏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상대방을 반박하기 위해 제시하는 상대방의 논증이나 오류를 가르치려고 제시하는 오류 논증뿐일 텐데, 이것들은 ‘논증 제시자’의 의도가 개입된 논증은 아니다. 다음 절부터 홍지호·여영서가 의도 기준을 지지하기 위해 제시한 논증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텐데, 그 이전에 이런 치명적인 문제점부터 생기게 된다.¹⁴⁾

14) 한 심사위원은 이런 비판은 홍지호·여영서에 대한 허수아비 비판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다. 의도 기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논증을 ‘연역으로 의도된 논증/귀납으로 의도된 논증/연역으로 의도되지도 귀납으로 의도되지도 않은 논증’으로 구분하거나, ‘연역적으로 의도되었고 그 의도가 성취된 논증/귀납으로 의도되었고 그 의도가 성취된 논증/연역적으로 의도되었지만 그 의도가 성취되지 않은 논증/귀납으로 의도되었지만 그 의도가 성취되지 않은 논증’으로 분류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내가 비판하는 바는 과연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들이 ‘연역으로 의도되지도 귀납으로 의도되지도 않은

3. 논증 식별에서 논증 제시자의 의도 파악

홍지호·여영서는 실현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도 기준을 지지하는 논증을 몇 가지 제시한다. 이제 그것을 검토해 보자. 그들은 논증 제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연역과 귀납을 구분하기에 앞서 논증인가 논증이 아닌가를 식별할 때부터 의도를 따져보는 작업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들이 제시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p. 158). (편의상 홍지호·여영서가 붙인 사례 번호를 그대로 이용하겠다.)

<사례 3>

그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 바쁜 일이 있어서 숙제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례 4>

그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 자꾸 선생님의 눈을 피하는 걸 보면 틀림없다.

그들은 <사례 3>은 설명으로, 그리고 <사례 4>는 논증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한다. <사례 3>의 두 문장은 각각 설명항과 피설명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고, <사례 4>의 두 문장은 각각 전제 역할과 결론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해석할까?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의도이다. 즉, “한 문장에 근거하여 다른 한 문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있는지의 여부를 통해 하나는 논증으로 다른 하나는 논증이 아닌 것으로 식별”(p. 158)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논

논증’이나 ‘연역적으로 의도되었지만 그 의도가 성취되지 않은 논증/귀납으로 의도되었지만 그 의도가 성취되지 않은 논증’을 ‘나쁜 논증’으로 의도했느냐는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논증에는 분명히 나쁜 논증이 있고 또 있어야만 한다. 의도 기준에서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증은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논증 제시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데, 홍지호·여영서는 실현 기준을 지지하는 새면이나 이영철도 이 점에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p. 159).

물론 홍지호·여영서는 논증 제시 의도 파악만을 통해 의도 기준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논증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말하는 것이고,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기 때문임을 인정한다(p. 160). 그러나 의도 기준에서 개입되는 의도의 파악은 핵심적이므로 논증 식별 단계에서도 검토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일단 홍지호·여영서의 해석과 다르게 <사례 3>은 얼마든지 설명이 아니라 논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논증과 설명을 구분하는 것은 철저하게 맥락과 상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결론 또는 피설명항으로 제시된 문장이 화자와 청자가 모두 동의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례 3>의 “그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에 청자가 이미 동의하고 있다면, “바쁜 일이 있어서 숙제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는 왜 그랬는지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문장에 청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문장은 그것에 동의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사례 3>만 딸랑 주어진 현재로서는 그것을 확정할 수 없다. 그러니 <사례 3>을 설명으로만 단정해서는 안 된다.

물론 지금 <사례 3>이 설명인가 논증인가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 오히려 홍지호·여영서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반박이 곧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과정이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논증을 식별할 때는 위에서 말했듯이 애초에 결론 또는 피설명항으로 제시된 문장이 화자와 청자가 모두 동의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논증인가 설명

인가를 식별할 때는 논증 제시자의 믿음, 즉 화자가 내가 제시한 문장을 동의하는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실현 기준을 지지하는 나도 앞으로 설명할 연역과 귀납의 구분과 다르게 논증과 설명의 구분은 그 제시자의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개입함을 인정한다.

실현 기준을 지지한다고 해도 논증을 식별할 때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숨길 이유가 없다. 오히려 실현 기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게 더 문제다. 홍지호·여영서는 부적절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의 사례로 많이 인용되는 다음 사례를 살펴본다(p. 167).

<사례 7>

문화나 도덕에 있어서 객관적 표준이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이는 이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통해 입증한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사례 7>은 나쁜 논증이라고 평가해야 하는데, 실현 기준에서는 논증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p. 167)가 그 이유이다. 이렇게 되면 나쁜 논증과 논증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데 문제가 있게 되고, 연역과 귀납을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인 ‘망라적 배타성’(p. 162)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왜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가? 홍지호·여영서는 그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서 실현 기준과 달리 의도 기준은 할 수 있다는 언급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야 한다. 그들은 <사례 7>에서 ‘입증’이라는 말이나 어투를 통해 뒷받침을 의도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논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한다(pp. 167-68). 그러나 실현 기준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위에서 말한 논증과 설명을 구분하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 보

라.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라는 명제에 동의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테니, <사례 7>의 마지막 문장은 누가 봐도 이 명제를 지지하는 근거로 인식할 것이다. 실현 기준이라고 해서 논증 파악을 할 때 의도를 파악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제 문제는 연역과 귀납을 구분할 때 의도가 파악하느냐이다.

4. 연역과 귀납의 구별에서 논증 제시자의 의도 파악

홍지호·여영서는 보울스가 연역/귀납 구분이 만족해야 한다고 제시한 세 가지 기준을 빌려 온다(p. 162).

- (가) 망라적 배타성: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구분이 모든 논증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의 논증이 연역 논증이면서 동시에 귀납 논증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
- (나) 평가적 개방성: 좋은 연역 논증과 나쁜 연역 논증, 그리고 좋은 귀납 논증과 나쁜 귀납 논증을 구분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
- (다) 평가적 효용성: 논증을 평가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하는 것이 논증을 평가하는 데 아무런 쓸모도 없다면, 그 구분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 중 평가적 개방성은 특정 기준에 편향적인 것임을 인정하고 기준에서 제외한 다음에(p. 163), (가)와 (다) 기준을 가지고 실현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들은 우선 다음 사례가 망라적 배타성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한다(p. 163).

<사례5>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다. 따라서 트럼프는 바둑을 두지 못한다.

그들은 실현 기준에 따르면 이 논증은 연역 논증도 아니며, 개연

적 뒷받침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논증은 귀납 논증도 아니고, 나쁜 논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연적 뒷받침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미국 대통령임’과 ‘바둑을 두지 못함’의 관계에 관한 정보가 위 논증의 전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p. 164). 그러나 이런 말을 하면 누구나 이 논증에서 숨겨진 정보를 보충하여 해석할 것이라고 대꾸할 것이다. 홍지호·여영서도 당연히 그것을 알고, 다음과 같은 숨은 전제로 논증을 보충한다(p. 165).

- (1) 모든 미국 대통령은 바둑을 두지 못한다.
- (2)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은 바둑을 두지 못한다.

<사례 5>는 (1)이 숨은 전제로 보충되면 연역 논증으로, (2)가 숨은 전제로 보충되면 귀납 논증으로 분류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 실현 기준은 망라적 배타성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지호·여영서는 여기서 실현 기준을 비판하고 의도 기준을 지지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한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곧 의도 기준을 들여오는 것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망라적 배타성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곧 바로 실현 기준의 입장을 위협하는 근거가 된다. 생략된 정보를 고려하면서 논증을 분류한다는 것은, 논증 제시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에 따라 논증을 분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p. 165)

홍지호·여영서는 평가적 효용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도 똑같은 난점에 부딪힌다고 말한다. 다음 사례를 보자(p. 166).

<사례 6>

내일 비가 온다면, 내일 소풍을 가지 못한다. 따라서 내일 소풍을

가지 못한다.

그들은 이 논증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략된 전제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실현 기준에 근거하여 이 논증을 분류한다면, 그냥 나쁜 논증이라고 해야 한다. 타당하지도 않고 개연적 뒷받침 여부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p. 166)

이제 홍지호·여영서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자. 실현 기준은 정말로 망라적 배타성과 평가적 효용성을 충족하지 못하는가? 실현 기준은 <사례 5>를 연역 논증도 귀납 논증도 아닌 것으로 분류하고, <사례 6>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실현 기준은 <사례 5>를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 중 하나로 분류하며, <사례 6>을 좋은 논증이거나 나쁜 논증으로 평가한다. 아마도 홍지호·여영서는 **논증의 재구성과 논증 분류[평가]**를 헷갈리는 것 같다. 어떤 논리학 교과서에도 논증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나오며,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자비로운 해석의 원리’를 적용하여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최대한 파악한 다음에 그 의도에 가깝게 재구성한다. 이것은 어떤 논리학자나 논리학 교육자도 부정하지 않으며, 논리 교육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사례 5>는 숨은 전제 (1)이나 (2)가 생략된 논증으로 본다. <사례 6>에서도 ‘내일 비가 온다’라는 전제가 생략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실현 기준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는 마땅히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최대한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 끝에 재구성한 논증은 이미 전제와 결론의 뒷받침 관계가 **실현된 논증**이다. <사례 5>는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찾아 숨은 전제를 찾는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논증들로 재구성될 수 있다.

<사례 5-1>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다. 모든 미국 대통령은 바둑을 두지 못한다. 따라서 트럼프는 바둑을 두지 못한다.

<사례 5-2>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다.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은 바둑을 두지 못한다. 따라서 트럼프는 바둑을 두지 못한다.

우리는 <사례 5-1>은 연역으로, <사례 5-2>는 귀납으로 분류한다. <사례 5-1>은 전제와 결론 사이의 뒷받침 관계가 이미 연역으로 실현된 논증이지, 연역으로 의도된 논증이 아니다. 이는 <사례 5-1>과 <사례 5>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사례 5>를 해석할 때는 의도가 필요하지만 <사례 5-1>을 분석할 때는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도 기준을 지지하는 홍지호·여영서도 인정할 것이다. 홍지호·여영서는 <사례 5-1>과 비슷한 <사례 8>(내일 비가 온다면, 내일 소풍을 가지 못한다. 내일 비가 온다. 따라서 내일 소풍을 가지 못한다.)이 의도 기준에 따라 연역 논증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 까닭은 “<사례 8>이 타당한 논증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뒷받침 강도에 대한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파악한 것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p. 172). 그러나 우리는 ‘타당한 논증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파악할’ 뿐이지 그것을 ‘의도로서’ 파악하는가?¹⁵⁾ 가령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파악할’ 뿐이지, 그것을 ‘의도로서’ 파악하는가? 처음부터 <사례 5-1>(또는 <사례 8>)을 제시하는 논증 제시자도 흔하다. 그런데 <사례 5-1>만 실현 기준을 따르고 <사례 5>는 의도 기준을 따른다고 해야 할까? <사례 5>를 제시한 사람은 <사례 5-1>을 의도했을 수도 있고 <사례 5-2>를 의도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사례 5-1>과 <사례 5-2> 중 하나이다. <사례 5-1>과 <사례 5-2>

15) 한 심사위원께서 홍지호·여영서의 이 발언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해 주셨다.

중 하나에는 의도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실현 기준은 망라적 배타성을 충족하고 있다.

한편 홍지호·여영서는 실현 기준에 근거하여 <사례 6>을 분류한다면 그냥 나쁜 논증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논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략된 전제를 고려해서 귀납 논증이든(내일 비가 올 확률이 70%라고 예보된 상황) 타당한 논증이든(내일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것을 믿고 있는 상황) 분류해서 평가해야 하는데, “생략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현 기준만을 가지고는 논증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p. 166)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홍지호·여영서가 논증의 재구성과 논증 평가를 헷갈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현 기준을 지지한다고 해도 <사례 6>을 자비롭게 해석하여 숨은 전제를 보충하는 과정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의도를 파악해야 하지만, 그 결과로 나온 논증에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연역이든 귀납이든 하나가 실현되어 있고 그에 따라 논증을 평가한다. 그러니 실현 기준은 평가적 효용성도 충족한다.

사실 논증의 숨은 의도는 논증 제시자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의도 기준에 대한 가장 흔한 반론은 논증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은 ‘타당성’이나 ‘개연성’ 개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모르는 개념을 의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¹⁶⁾ 쉽게 말해서 실제로는 타당한 논증을 제시하면서도 개연적인 논증으로 의도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 개연적인 논증을 제시하면서도 타당한 논증으로 의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의 예로 말하면 <사례 5-1>을 제시하면서 개연적인 논증만을 의도할 수도 있고, <사례 5-2>를 제시하면서 타당한 논증을 의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례 5-1>은 귀납이고 <사례 5-2>는 연역이라고 분류하는

16) 홍경남(2012), p. 189.

가? 이를 보면 <사례 5-1>과 <사례 5-2>는 논증 제시자의 의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논증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례 5-1>과 <사례 5-2>로 재구성할 때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참조’할 뿐이다.

홍지호·여영서도 이런 종류의 반론을 알고 있기에 거기에 대답을 한다. 그들은 의도 기준에 대한 반론의 핵심은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에 의도 기준이 오히려 망라적 배타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을 우려한다. “동일한 형태의 논증이 상황에 따라 연역 논증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귀납 논증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면, 의도 기준 역시 망라적 배타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p. 172)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러한 우려에 이렇게 대답한다.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논증이란 논증 제시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성립하는 독립적인 언어적 구성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두 논증이 모두 <사례 5>의 형태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두 논증은 서로 다른 종류일 수 있다.(p. 172)

앞서 홍지호·여영서는 실현 기준이 논증 재구성의 과정에서 의도를 파악해야 하기에 실현 기준이 의도 기준을 들여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서 그들은 똑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짐작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논증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은 곧 실현 기준을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례 5-1>과 <사례 5-2>가 ‘서로 다른 종류’임을 인정하는데, 그래야만 망라적 배타성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그 두 논증이 서로 다른 종류라는 것은 전제와 결론 사이에 실현된 뒷받침 관계로 아는 것이지 의도로 아는 것은 아니다.

한편 홍지호·여영서는 논증 제시자가 뒷받침 강도를 잘못 알고 있을 때에 대해서도 답변을 한다.¹⁷⁾ 다음 두 사례를 보자(p. 174).

<사례9>

내일 비가 온다면, 내일 소풍을 가지 못한다. 내일 비가 온다. 따라서 내일 소풍을 가지 못할 확률이 크다.

<사례10>

내일 비가 온다면, 내일 소풍을 가지 못한다. 내일 비가 올 확률이 높다. 따라서 틀림없이 내일 소풍을 가지 못한다.

홍지호·여영서는 의도 기준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사례9>는 연역 논증으로, <사례10>은 귀납 논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도 기준을 따를 때 <사례 10>을 연역 논증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는 ‘틀림없이’라는 표현이 뒷받침 강도에 대한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드러낸다고 해석하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자비의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그러한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논증을 제시하면서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뒷받침 강도와 관련하여 뻔히 보이는 잘못을 범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 어느 누구도 1보다 낮은 확률에 기대어 필연성 뒷받침을 의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 ‘틀림없이’는 (...) 뒷받침 강도에 대한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주장 자체에 대한 바람이나 신념, 내지는 논증 제시자의 대범한 성향 등을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 178)

나는 이 대답에 대해 세 가지를 지적하려고 한다. 첫째, ‘틀림없이’가 논증 제시자의 ‘의도’가 아니라 ‘주장 자체에 대한 바람이나 신념, 내지는 논증 제시자의 대범한 성향 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의도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의도 기준’을 홍경남의 용어로 말해 보면 ‘심리적 접근법’인데 바람, 신념, 성

17) 그들은 이 답변의 한 가지로 의도 기준을 보완한 ‘선언 기준’을 검토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의도 기준에 따르고 잘못된 의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현 기준을 통해 구분한다는 것이다(p. 176). 그러나 바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기에(pp. 176-78), 이것은 여기서 검토하지 않겠다.

향이 심리적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둘째, 정말로 “뻔히 보이는 잘못을 범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가? 연역과 귀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논증 제시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생각한다면 ‘대부분이’ 그런 잘못을 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문제인데, 어떻게 ‘어느 누구도’ 그런 잘못을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신감’(?)은 이러한 생각은 <사례 9>와 <사례 10>을 제시하기 이전에 <사례 8>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사례 8>

“내일 비가 온다면, 내일 소풍을 가지 못한다. 내일 비가 온다.
따라서 내일 소풍을 가지 못한다.”

그들은 “이 논증은 타당한 논증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에 논증 제시자가 그러한 ‘의도’로 논증을 제시했으리라고 추측한다”(p. 172)고 말한다. 사람들이 논증의 타당성에 대해 잘 안다면 후건 긍정의 오류나 전건 부정의 오류가 왜 흔한 오류이겠는가? 부당한 논증인데 타당하다고 잘못 아는 경우도 흔한 것처럼, 타당한 논증인데 부당하다고(더 정확히 말하면 단지 개연성이 강할 뿐이라고) 잘못 아는 경우도 흔하다. 셋째, 그들이 그런 잘못을 범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추측해 보자. 그것은 그들 스스로 실현 기준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논증 제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제와 결론 사이의 뒷받침 정도가 실제적으로 연역인 논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근거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서도 의도 기준의 난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실현 기준을 들여오고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실현 기준보다 의도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홍지호·여영서의 논증은 성공하지 못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역과 귀납을 의도 기준으로 계속 쓰고 싶다면 나는 ‘연역 논증’이나 ‘귀납 논증’이라는 말보다 ‘연역 추리’나 ‘귀납 추리’라는 말이 어떤가 하고 제안해 본다. 새면은 ‘논증’(arguing)과 ‘추리’(reasoning)를 구분하고, 논증이 언어적 대상인 데 비해 추리는 심리적 활동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추리는 사람들이 논증을 할 때 어떤 정신적 과정이 일어나는지 서술하는 것이다.¹⁸⁾ 논증은 논리학이 다루는 대상이지만 추리는 심리학이 다루는 대상이다. 규범학인 논리학과 달리 과학인 심리학에서는 좋은 추리와 나쁜 추리를 구분하지 않는다. 좋은 논증이든 나쁜 논증이든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추리를 탐구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나는 홍지호·여영서가 말하는 논증 평가로서의 연역과 귀납도 ‘연역 추리’와 ‘귀납 추리’로 부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것은 논증을 제시하는 사람이 머릿속에서 연역이나 귀납이라고 생각할 때의 심리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와 달리 논증 분류어로서의 연역과 귀납은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이라고 하면 될 텐데, 이것은 지금도 쓰고 있는 용어이다. 김진형이 제안한 ‘연역적’도 편리한 면이 있다고 위에서 말했지만, 논증 분류어로서의 연역이 ‘연역적’으로 쓰일 때도 있으므로 헷갈릴 때가 있을 것이다. ‘연역 추리’라는 용어의 장점은 ‘부당한 연역 추리’가 홍지호·여영서의 의도대로 전혀 형용모순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리학자의 추리가 좋은 논증과 나쁜 논증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추리를 연구 대상으로 하듯이, ‘연역 추리’도 연역 논증(곧 타당한 연역)뿐만 아니라 연역

¹⁸⁾ 새면(2004), pp. 16-18.

논증을 의도했지만 실제로는 연역 논증이 아닌 논증(이른바 ‘부당한 연역’)까지 아우를 수 있는 것이다.

연역과 귀납의 구분을 둘러싼 논의를 매조지하기 전에 더 근본적인 언급을 한 가지 하려고 한다. 홍지호·여영서뿐만 아니라 연역과 귀납 구분의 논쟁을 참여하는 학자들 모두 이 구분이 논리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나는 더 근본적으로 논리 교육에서 정말로 연역과 귀납의 구분이 중요한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반성은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¹⁹⁾, 나는 그들이 그 구분이 논리 교육에서 중요하다고 말하기에 철학자들끼는 중요할지 몰라도 논리 교육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수준에서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연역과 귀납의 구분은 철학자 또는 논리학자에게는 중요한 관심사인 것은 분명하다. 삼단 논법을 비롯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 논증이나 귀납에 대한 흄의 회의나 굿맨의 귀납의 새로운 수수께끼는 철학에서 중요한 주제이므로, 철학 또는 전공 논리학 시간에 연역과 귀납의 구분과 그 특징은 꼭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전공 논리학이 아니라 교양 논리학 또는 실용 논리학 수업에서 연역과 귀납의 구분을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그 수업은 성공적인 논증을 만들고 상대방의 논증을 평가하는 것이 주된 목표인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연역과 귀납을 구분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까?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에도 논증을 학습하면서 연역과 귀납의 구분이 나오는데, 과연 그것이 쓸모가 있을까?

나는 회의적이다. 연역과 귀납의 구분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비형식 논리학자인 고두가 적극적으로 펼쳤는데, 나는 철학에서도 그 구분은 필요 없다는 주장을 빼고는 그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논증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받아들이

19) 한 심사위원이 이 점을 지적하셨다. 그 지적에 심분 동의한다.

기에 적합한지 아닌지인데,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결론을 실제로 지지하느냐를 살펴보면 된다.²⁰⁾ 이때 얼마나 강하게 지지해야 받아들이기에 충분한지는 논증이 주어지는 맥락에 달려 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논증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지 따지는 경우,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논증은 비록 귀납 논증이긴 하지만 연역 논증이나 다름이 없이 충분히 강한 논증이다. 전제가 결론을 충분히 뒷받침하느냐가 문제될 뿐이지, 거기서 연역일 정도로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전혀 없어야 하는지 아니면 귀납일 정도로 그 가능성이 조금만 있어도 되는지 구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개연성이 그만큼 강하지 않더라도 어떤 맥락에서는 충분히 강할 수도 있다. 고두도 지적 하듯이 맥락에 따라 요구되는 확실성의 정도가 다르다. 데카르트나 또 다른 회의론자들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절대적 확실성을 요구하겠지만²¹⁾,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정도의 확실성이 없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적합하다고 받아들인다. 나는 논증을 평가하는 기준이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할 수 있음을 2절에 언급하였다. 거기서 연역인가 귀납인가 분류할 때 한 번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설령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적합한 논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 한 번 평가를 한다고 했다. 이때 적합한 논증으로 받아들일지 평가할 때도 각자의 관심과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예컨대 같은 근거를 갖춘 논증을 법정에서 판단하는 기준과 일상생활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다를 것이다. 결국 논증을 평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제가 결론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과 맥락에서 적절한 정도로 충분히 뒷받침하느냐이다. 연역과 귀납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20) Goddu(2001), p. 6.

21) Goddu(2001), p. 7.

교양 논리학 수업에서 많이 가르쳐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오류이다. 그런데 오류를 가르칠 때 연역과 귀납의 구분이 필요한가? 어떤 논증이 선결문제를 요구하고 있는지,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 논증이 연역인지 귀납인지 알 필요가 없다. 성급한 일반화 논증은 귀납 논증의 오류로 가르쳐지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결론을 뒷받침하기에는 전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연역 논증이 아님을 알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래저래 연역과 귀납의 구분은 배울 필요가 없다.

참고문헌

- 김준섭 (1976), 『논리학』, 서울: 정음사.
- 김진형 (2019), “연역과 귀납의 구분 기준에 관한 논쟁에 대해”, 『철학적 분석』 42 pp. 97-119.
- 박중홍 (1985), 『일반논리학』, 서울: 박영사.
- 새먼, W. C. (2004), 『논리학』 (제2전정판), 곽강제 옮김, 서울: 박영사.
- 이영철(2016), “연역과 귀납의 구분 기준에 관하여”, 『철학연구』 115, pp. 55-79.
- 코피, 어빙·칼 코헨 (2000), 『논리학 입문』 제10판, 박만준·박준건·류시열 옮김, 경문사.
- 홍경남 (2012), “연역과 귀납의 분류-논증론에서 연역/귀납 분류법의 지위”, 『철학탐구』 31, pp. 181-231.
- 홍지호, 여영서 (2019), “‘부당한 연역 논증’은 형용모순인가?”, 『논리연구』 22(1), pp. 151-182.
- Goddu, G. C. (2001), “The ‘Most Important and Fundamental’ Distinction in Logic,” *Informal Logic* 22(1), pp. 1-17.

강원대학교 자유전공학부

Department of Division of Liberal Studi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oih@kangwon.ac.kr

'Invalid Deductive Argument' Is an Oxymoron!

Hoon Choi

Hong and Yeo choose the intention criterion instead of the realization criterion for distinguishing deductive and inductive argument in their paper. This study aims to criticize their argument. I contend that their argument confuses argument reconstruction and argument classification[evaluation], and is making the mistake of utilizing the realization criterion when attempting to make up for the difficulties of the intention criterion. Also, most logicians, including Hong and Yeo, support the division of the argument into deductions, inductions, and bad arguments. Here I insist on a binary division of only deduction and induction. Finally, I argue that there is no need to teach the distinction between deduction and induction when teaching logic.

Key Words: Deduction, Induction, the realization criterion, the intention criterion, Jiho Hong, Yeongseo Yeo